



표지사진 : 2000년 7월 인도 어린
이들의 모습입니다. 눈망을 하나하
나 너무 예쁘지요?

JTS 통권 25호 9 · 10월

펴낸날 : 2000. 9. 8

펴낸이 : 법 료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윤기희, 김애경, 최양희, 조윤숙
이상임, 김경나(부산JTS)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ungto.org

인터넷 : <http://www.jungto.org/jts>

인도

4 인도 등게스와리 소식

5 특집 | 위크캠프를 다녀와서

나와 부딪혔던 시간들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 청년정토 인도자원봉사활동
인도에서 보낸 여름

| 떠나기전 목소리

북한

9 지금 북한에서는

청간에서 흘린 눈물

10 몽골에서 온 소식

대륙에서 뜬 글

청소년

12 아름다운 청소년

심정수견이랑

그리고

14 후원의 소리

'사랑의 옷 보내기'를 하면서
명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17 활동보고 및 안내

19 회원광고란

20 신규회원 명단

22 결연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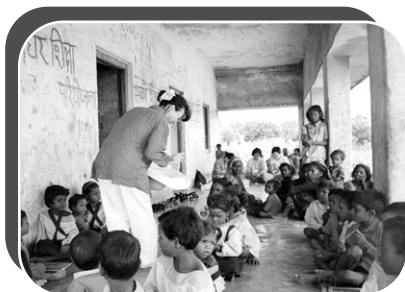
26 후원 프로그램 안내



이 덕 아 / 인도사업 책임자

청년 자원봉사활동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에서 온 교사 및 일반 직장인들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처음 몇 일 동안 수자타아카데미에서 기본적응 훈련을 마치고 마을 유치원 선생님들과 한 팀이 되어 각 유치원에 배치되었습니다. 5일 동안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했는데 함께 먹고 자면서 마을 사람들과 모네기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화장실이 없어서 산과 들에서 불일을 보고 목욕탕이 없어 몇 일째 목욕도 못하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모기도 많고 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보낸 시간들이었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알레르기 온몸에 난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워서 고생한 선생님, 첫날 도착한 마을 선생님 집에 도둑이 들어 다음날 집을 싸들고 다시 수자타로 오신 선생님. 힘든 시간들이어서 더 오래 남을 추억이라고...



쁘리얀카 새 교장선생님으로

슈레스 교장선생님이 한국으로 떠난 후 학교 일을 전주 법사님이 바쁜 와중에 맡아 오셨는데 그 동안 수자타아카데미 유치원 원장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뿌리얀카 선생님이 새 교장선생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8월 10일 전교생과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취임식을 가졌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끝내 울먹이셨습니다. 유치원과 수자타아카데미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뿌리얀카 선생님께 많은 박수 보내주세요.

새 교복과 책가방이요!

8월 1일 학교 자체 내에서 맞춘 책가방을 전교생 150여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책가방은 굵은 낱씨를 감안하여 방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여름방학동안 모라탈 어머니회에서 열심히 만든 교복을 8월 14일 4곳 유치원생 약 200여명과 상급생 14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든든한 가방과 빛나는 교복! 새 학기를 맞이하는 기분도 등등!..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2차 1기 기숙사생 입제식

8월 10일 상급생 6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입제식을 가졌습니다. 마을 리더 역할을 담당할 6,7,8학년 남학생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이들 점심밥도 함께 만들고 농사일, 공사일도 도우며 5개월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워크캠프를 다녀와서

나와 부딪혔던 시간들

한 진 희



어느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장의 포스터를 보았다 '인도체험봉사활동'이란 글자와 큰 눈동자의 어린아이 사진을 보고 내 마음은 몹시 두근거려 그 자리에서 캠프에 참가하겠다는 마음을 내었다. 그러나 나는 포스터에 써져진 캠프 설명을 한국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어도 무작정 인도를 향해 떠났다.

둥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캠프를 진행했는데 인도사람들과 한국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힌디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이야기했는데 나는 힌두어와 영어는 아예 모르고 한국어도 입 모양을 보고 귀를 잘 귀 기울여야지 이해가 되었다. 아침에 힘을 내어 일을 하고 나면 저녁에는 피곤해졌었는데 힘이 있을 때는 집중도 잘되어 한국말이 잘 들리지만 힘이 없을 때는 한국말을 듣는 것이 괴로웠었다. 그래서 토론이나 강의를 듣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나에게서 더 힘들게 느껴졌다.

그러나 집 짓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었는데 특히 삼질하기, 길 닦기, 흙집 짓기, 예쁜 인도어린이들 씻어주는 일은 이제까지 아무리 해보고싶어도 못했던 일들이다. 날씨는 무지무지 덥고 피곤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이 앞서 결국 일주일의 지나서는 쓰러져 눕고 말았다. 열이 나고 설사, 구토 때문에 3일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해 침대에서 살았고 1주일간 밥을 먹지도 못해서 굶었다. 그래도 그렇게 아팠던 일이나 말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 의사소통이 불편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말을 모르면 알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아플 때는 힘을 북돋아주고 밥도 갖다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와주었다.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이런 친구들 덕분이다. 캠프에 처음 참가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캠프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힘이 얼마나 작은지 절실히 느꼈다. 아마도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캠프를 통하여 알 수 있어서 캠프가 나에게 참 고맙게 느껴진다. 인도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JTS, 이번 캠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도'라는 특별하면서도 아주 평범한 나라에.....한국어는 물론 이번엔 영어도 익혀 다시 꼭 인도를 방문하리라는 마음을 품고.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백 창 렬



40도를 넘나드는 인도 오지 더위아래서 땀흘려 일하던 200여명의 친구들.. 내 눈의 몇 배나 되는 마을 어린아이들의 모습.. 델리, 보드가야, 동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 갑자기 그리워지는군요. 델리에서 보드가야를 거쳐 수자타아카데미가 있는 동게스와리에 도착했을 때 '내가 정말 인도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병원 앞 도로를 닦는 것을 시작으로 만코시힐, 아자드비가, 소라지비, 자그디스푸르에서 집을 차례대로 지었는데 그 집들은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집으로 내가 보기에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도인들과 한 조가 되어 함께 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하는 방식과 인도인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일을 할 때면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캠프가 진행되면서 다양하므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집 없는 사람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 땀 흘리고 있는 그들과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아직도 그 느낌이 가슴에 남아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비가 와서 캠프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인도인들



이 함께 마당에서 춤을 출때는 정말 신나고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마을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혔는데 목욕시키다 이가

웁아 이를 잡았던 한 친구의 모습도 생각이 나네요. 인도이기에 가능한가 봅니다. 떠나기 전날 콜라가 먹고싶어 인도친구와 가야시에 갔었는데 밤에 차가 끊어져 동게스와리까지 3시간을 걸어서 왔답니다. 소낙비를 4번 맞으며 보던 밤하늘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혼자 가야할 길을 같이 가주었던 인

도친구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 친구 이름이 라제쓰인데 잘 있는지 궁금하네요. 10일간의 워크캠프가 끝나고 정든 인도 친구들과 헤어질 때 주소를 나누던 것이 마지막 동게스와리 모습이었습니다. 방콕 행 비행기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느꼈던 것은 고마움과 소중함이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 인도 캠프에서



|인|도|특|집|

만난 친구들. 나를 인도에 갈 수 있게 해주신 분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쓰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내 삶의 목적을 다시금 다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란자라 강이 보이는 전정각산 그 아래 자리잡은 수자타아카데미. 그리고 보리수나무 그 시원한 그늘을 떠올리며...

* 인도 현지에 있는 「LG전자」에서 지원받은 50만 루피의 기금으로 ‘사랑의 집짓기’를 하였습니다.

청년 자원봉사 활동

인도에서 보낸 여름

고 정 희

이번에 구성된 청년정토 인도 자원봉사자 8명은 직접 마을에 들어가 인도 사람들과 며칠간 함께 살기로 결정되었다. 홈스테이에 들어가기 전 모두들 화장실도 없고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인도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보따리를 싸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4개의 마을로 둘씩 정해져 들어가던 8월 31일 아침은 상기된 표정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다. 우리가 들어갈 마을은 JTS가 마을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왈비가, 방갈비가, 바가히, 모라탈이었다. 마을로 떠나기 전 수자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1주일간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토의 해보고 서로 서로에게 전달연수를 하기도 하고 약간의 힌디어도 공부했다. 또 간간이 수자타에 있는 직영유치원과 주변 마을의 지원유치원에 방문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곁에서 단추 달아주기, 옷 꿰매주기, 약발라주기 등을 하며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시간에는 학교증축공사와 병원 공사일로 벽돌, 막대 나르는 일을 하기도 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던 기간은 온통 인도사람들의 커다란 눈망울에 휩싸여 지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잠에서 깨어난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을생활에 차츰 적응하면서 체조, 노래, 미술활동 등 가르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오후 시간에는 마을 사람들과 모내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옷을 빨아주거나 기워주기, 아이들 목욕시키기, 강가





|인|도|특|집|

모래사장에서 공놀이 등으로 하루 일과를 보냈다.

8월 5일 밤에는 휴스테이를 끝낸 봉사자들이 오랜만에 머리 위에 반짝이는 별들을 이고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둘러앉았다. 어떤이는 이제 좀 적응하려니가 마을을 나와야해서 아쉬웠노라하고.. 하루하루 염주알을 돌리며 '참아야하느니...' 하다보니 불심이 깊어졌다해서 폭소를 터뜨리고.. 인도 아이들이 처음으로 날려보내는 종이 비행기가 감동적 이었다하고.. 마을에 간지 이틀만에 도둑이 들어 수자타로 되돌아온 얘기.. 피부병이 나서 고생한 얘기.. 들판에서 불일 본 얘기.. 마을에서 나올 때 눈물로 이별한 얘기.. 다들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 봉사를 계기로 인도와 인도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느꼈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돕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시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음을 털어놓는다.

떠나기 전 목소리

9월 6일 출국하는 6개월 자원봉사자들의 떠나기 전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임미예: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인도에 가게 된다니 꿈만같습니다. 힘들겠지만 건강하게 생활하고 오겠습니다. 6개월 후엔 커져있을 제자신을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이수민: 출국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떨리네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폐끼치지 말고 좋은 인상 남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진: 널모레면 떠나는대도 아직 실감이 나질 않네요 한국인의 좋은 모습을 심어줄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지원: 다시 한번 인도에 가고싶어서.. 가게된다는 생각에 기쁘고 설레었는데 인도가 가는 과정은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즐겁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주어진 일들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행복하네요

이효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마음보다는 늘 배운다는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임경화: 봉사하는 기회보다는 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제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영일: 잘 적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미소짓는 마음으로.. ^^





청진에서 흘린 눈물

북한에서는 <고아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나이별로 구분하여 교육시키고 있는데 0세~4세까지는 애육원, 5세~7세까지는 육아원, 8세~15세까지는 초등학교, 16세~18세까지는 중등학교로 부르고 있다. 애육원, 육아원은 아이들이 먹고, 자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있고 인민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기숙사 시설과 교육시설이 구분되어 있다. 인원은 한군데 약 500~600명되어 청진에 있는 모든 고아원의 총인원은 2,300여명정도가 된다.

3월에 우리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식량이 가장 긴급했으므로 입쌀(쌀) 10톤을 지원했다. 그런데 방문해서 살펴보니 '사는데 필요한 전부'가 필요했다. 애육원 아기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저귀가 부족했는데, 부족하다기보다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옷이나 이불을 뜯어서 기저귀로 사용하거나 아예 없어서 쓰지 못하는 아기가 많았으니까. 북한의 누구나 그렇지만 양말 신은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고 비누가 없어서 빨래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일론 튜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안에는 아무 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 팬티까지도.. 중등학교의 경우는 요즘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새로 신설한 시설이었는데 부족한 물자가 너무나 많았다. 그 중 특히 요구되는 것이 이불이었다. 한방에 10여명이 자게되어 있는데 불기 없는 냉랭한 방에 얇고 넓은

이불이 2~3채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옷 입은 모습이나 방안을 들여다보고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라진-선봉에 처음 들어갈 때도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피부가 헐고 벗겨지고 다리는 구부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었는데 그때 보다 더했다. 더구나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에 계속 눈물만 흘렸다. 뭐든지 필요하다니 우선 4월부터 계속해서 한 달에 한번씩 이불, 내복, 양말, 기저귀, 보온병, 사탕 등을 지원하였다. 식량으로는 밀가루로 1년에 200톤을 지원하기로 하고 점차로 국수기계를 지원하여 국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진에 다니다보니 회령에서도 계속 지원요청이 들어왔다. 회령에는 함경북도 경로원이 있는데 인원은 약 200여분이 된다. 경로원에는 7월에 방문하였다. 북한에서 일하다보면 울면서 시작하는데 라진 보다 청진이 더하였고 청진보다 회령이 더하였다. 방문하여보니 우선 노인들의 모습이 궤변되었다. 장관 없는 방구들은 깨어져서 내굴(연기)이 올라와 그나마 없는 이불이며 옷들이 새카맣았는데 비누가 없어서 빨지도 씻지도 못하고 있었다. 옷은 하도 오래 입어서 찢찰 찢어지는 수준이었다. 그곳에 같이 간 사람들 모두 울었다. 8월에 이불, 비누, 칫솔 등을 준비해서 지원하였는데 북한에는 너무나할것없이 어려우니 경로원이라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그저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다.





대륙에서 쓴 글

최정연 (JTS몽고파견 실무자)

6월 8일

밀가루 받고서 감사하다며 우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무뚝뚝한 시골 사람처럼 거의 감정 표현이 없는 몽고 사람들이라 다들 조용히 고맙다고 고개만 숙이는 편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툭툭 흘리는 눈물을 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그 할머니의 절박한 현실, 고마움의 눈물에서 생의 고통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는 작은 일들이 이런 삶의 핵심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슴 찡한 울림으로 내안에 퍼졌다. 하지만 내맘 한구석에는 마치도 각인된 사진 같은 꽃제비 아이들, 춥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무서움에 떨던 저쪽 사람들이 생각났다. 두고온 실이도...



6월 13일

안녕하세요. 울람바토르에 나왔습니다. 내일 나머지 밀가루 26톤 실어가려구요. 인터넷 보니 남북 정상회담 시작이데요. 밀가루 나눠주면서도 잘 되고 있나 싶었는데... 푸른 들판, 파란하늘 보면서 괜히 눈물이 나데요. 아무리 어렵고 더럽고 무능력한 이 사람들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데... 밀가루 나눠주면 아무리 없는 집에서라도 굶은 밀가루 반죽 튀김이라도 하나씩 주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만요. 이것도 없어서 굶어 죽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몰래 나와 눈물닦고 다시 몽골 사람들과 밀가루 나르고 나눠주고 하면서 어제 10톤 끝내고 왔습니다. 이걸 보고서 아니예요. 그냥 주절주절... 보고서는 다음에 보내드리지요. 그냥 회답이 시작되서 오만생각이 다 나세요.

구한말부터 나라 흔들리고, 뺏기고, 외세에 시달리고, 전쟁까지하고, 선진국 따라 갈려고 발버둥친 반쪽과 오로지 민족 주체성, 정통성 하나로 버티다 사람 굶어죽은 반쪽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고단함과 치열함, 비참함, 지독함... 아마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맘에 한이 있다고 하나보지요. 아마도 겨울강가에 얼어 죽은 시체를 본 덕분인지도 모르고 검은 쥐처럼 숨어다니며 몰려다니던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 본 덕분인지도 모르지요. 아무리 거짓말과 폭력으로 산다고 해도 그 잘못



없고 맘들곳 없이 도망다니며 하루하루 산 아이들에게 제 맘에 짐이 있나봐요. 그게 무거워 안보려 왔는데 오히려 자꾸 밝히네요. 여기 자연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사람들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저쪽 사람들 생각이 나네요. 웃기죠? 짐이 부담스러워 내려놓고 떠났다가 다시 그 짐생각하는게. 내 평생 이러지 않나 싶어요. 시골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했다가 그냥 살기 미안한 세상일 보게 되면 울고 다시 나왔다가 또 그 조용함,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식... 스님이 그거 꿰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남아있네요. 내일 떠나면 하루 종일 달려서 모레 하르호른에 도착하고 계속해서 배분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계세요...

8월 7일

통역 줄라가 아침부터 설사하고 배 아프다는걸 등록처까지 데리고 가서 통역하고 병원에 갔더니,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오후 입원했습니다. 정확한 진단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온답니다. 심한 병이 아니길... 그리고 통역이 올 가을에 복학해야 하고 또 몸도 약해서 시골에 가서 일할 처지는 못되는 것 같아 다시 통역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록증 받는대로 컨테이너 부치면 울란에 창고부터 구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알아보죠 뭐. 여기는 계속 비내리고 쌀쌀합니다. 솔직히 추워요. 여기 사람들은 반팔입고 다니는 사람, 겨울 잠바 입은 사람 가지가지예요. 이전에 한샘이 8월에 몽골 갔더니 추위 혼났다고 해서 엄살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9월부터 겨울이라 이집도 겨울 준비하느라 방-나무 바닥-을 떼우고 페인트 칠 하고 바쁘군요.

8월 24일

초이발산으로 출장 다녀왔습니다. 가서 시장 만나고 컨테이너 받을 때 협조 부탁한다는 서류 받고, 제 장기거주에 필요한 보증서 받고, 또 지원대상 지역 1차 지원명단 확정하고, 창고, 차량, 운전수 문제, 창고 보안문제 얘기하고 왔습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내일 세관에 가서 한번더 필요한 것들 확인하고 종합보고 드리지요. 다음에 또..

9월 5일

부산에서 보낸 컨테이너 지금 자문우드 지나 울란으로 오고 있습니다. 밤이면 도착합니다. 내일은 찾아 초이발산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심성수련이란

방난승

심성수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이다. 심성수련은 인성개발 운동의 하나로서 보통 소집단으로 진행되는 체험학습이다.

◆ 심성수련 활동의 목표

심성수련은 먼저 나와 남을 바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으로써 관계를 좋게 하고, 행동을 바람직하게 바꿈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진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자기가 겪은 것들이 마음 깊숙이 남아서 어떤 굳어진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본래 마음씨와 보통 아주 다르기 마련이다. 이렇게 본래 심성과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살다보면 자신을 믿지 못 하고, 남을 경계하며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게 되기 쉽다.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심성수련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관계를 기꺼이 넓고 깊게 가지려는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 또한 마음이 바뀌면서 행동도 변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경계하면서 맞서거나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바뀌어 간다.

◆ 심성수련 활동의 특징

심성수련 활동은 보통 학습 방법과 아주 다른 특성이 많다. 이 특성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완전 자의(自意) 학습이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요구해서 떠밀리듯 하는 사람한테는 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가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별다른 의욕 없이 참여한 사람한테 어떻게 참여 동기를 높일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참여자 모두가 수련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



수련 집단에 참여한 모두가 다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자신의 이야기, 또한 지금-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루어지므로 참여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진지하고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

③ 경험할수록 참여의식이 높아진다.

심성수련 활동에서 다루는 영역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개인 신상이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성격, 희망, 취미, 인생 목표 따위와 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할수록 점점 깊이와 흥미가 더해지기 마련이다.

④ 나이나 학력에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심성수련은 나이나 학력, 또는 경험 면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다는 아주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할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로 겨루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들은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⑤ 돕는이도 함께 성장한다.

심성수련을 진행하면서 흐름을 조절하는 사람을 돕는이라 하는데, 돕는이는 교사나 교관처럼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함께 하면서 자신도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돕는이는 다른 참여자들보다는 많은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타성에 젖어 알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식으로는 제대로 돕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

⑥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모두 심성수련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내·외, 들, 산, 바닷가 어떤 곳에서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성장의 길로”

1. 일 시: 10월 18일~22일, 12월26일~30일

2. 장 소: 정도수련원(경북 문경소재)

3. 참가비: 무료(교통비 포함)

4. 대 상: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20명

①서울지역 거주 ②부모가 실직상태에 있어서 마음이 불안한 청소년 ③학교생활에 관심이 없고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 ④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청소년

* 참가 선정: 청소년, 부모, 선생님의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선정(담당 김애경 587-8995)

* 준 비 물: 필기구, 갈아입을 옷, 칫솔, 수건, 운동화 등

* 모이는장소: JTS강당(서울 서초동 정동회관 3층)

* 찾아오는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역 6번출구 전방 200미터 골프스키 골목



추/원/의/소/리/

‘사랑의 옷 보내기’를 하면서

부산정도회 정영부(45세, 주부)



기도를 하고 있으니 선주행 보살님이 몽골에 옷 보내기하면서 느낀점을 써 달라고 하신다. 부탁 아닌 부탁을 받고 사양하지도 못하고 ‘한번 써보지’ 하면서 마음을 접어버렸다. 집으로 오는 차 속에서 옷 수거하면서 창고가 마땅한 게 없어 애 태우던 지난 6월달로 거슬러가고 있었다.

법륜스님께서 반야심경 강의 중 몽골에 한파가 밀려와 헌옷과 이불을 수거한다는 말씀에 처음엔 별뜻 없이 생각하다 법당계단, 옥상 이곳저곳에 헌옷이 쌓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불이며 신발이며 옷이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것을 보니 저 많은 옷을 보관하자면 창고가 필요 할텐데 하며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우리 아파트 반지하가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남편에게 의논을 했다. 남편도 “그것 참 좋은 일인데” 하며 무료로는 안되고 최대한 싼값에 의논해 본다고 아파트 회장님한테 연락하니 주택과는 달리 까다로운 점이 많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반상 회라도 자주 나가고 아파트 주민들과 친하게 지낼걸. 10년이 다 되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후회가 되었지만 자꾸 남편만 재촉할 수밖에... 회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하니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틀이 지나 겨우 승낙을 얻어 지하에 옷을 갖다놓기 시작했다. 그러데 또 문제가 생겼다. 콘테이너가 너무 크고 길어서 아파트 지하 앞까지 못 들어온다고 일일이 작은 트럭에 실어서 아파트 밑에까지 나르는 작업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한다. 500박스나 되는 저 상자를 누가 일일이 다 하나 싶어 걱정이 되었다. 괜히 이 창고에 들어왔다가 사람들 고생만 할 것 같아 다른 창고를 알아 보라 했지만 그리 쉽게 마땅한 창고가 없었다. 괜히 내가 앞장섰나? 못한다고 할걸...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일단 마음을 접어두었다. 법당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도 문제이고, 화장실 문제, 더운 여름이라 시원한 물이라도 주어야 할텐데



저녁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며칠을 내내 우울하게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생각은 차차 정리가 되었다. 시원한 물이 없으면 수박이라도 주고,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되지 뭐,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말자고 편히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을 접어두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막상 일을 시작하니 재미도 있었고, 애쓰시는 보살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마스크 쓰고 먼지를 마시면서도 깔깔대며 그냥그냥 재미있게 옷을 정리했다. 산 더미처럼 쌓였던 옷들이 보살님들 손에 의해 한 박스씩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박스 나르던 법사님, 여름 내내 짜증 한번 안내고 옷 수거하러 다닌 보광법우님, 남자 못지않게 역척스레 일한 선주행 보살님, 얼굴에 먼지가 가득해도 그냥 옷은 김희숙 보살님, 우스운 소리로 시간이 얼른 가게한 이덕련 보살님, 이점숙 보살님 그밖에 시간 날 때마다 먼지 덮어 쓰고 일해주시던 보살님들... 예쁜 옷도 많았고 정성스레 세탁소에 맡겨 세탁해 온 옷들도 있었고 새 옷도 많았다. 특히 여자 옷이 남자 옷 두 배나 되는 걸보고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좋은 옷 몽골에 많이 보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허리도 아팠고, 목도 따갑고, 먼지도 많이 덮어썼지만 드디어 8월 13일 235박스가 일차로 가게 되었다. 아침 일찍 경비실 아저씨 도움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양해를 구해 옆으로 치우고 나니 덩치 큰 컨테이너가 조심조심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올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게 컨테이너를 쳐다보았다. 거대한 몸집의 컨테이너가 아파트 모서리를 도는데 아찔했다. 다행히 무사히 컨테이너는 들어왔고, 우리는 분주하게 박스를 실었다. 컨테이너에 박스가 차곡차곡 쌓이자 정말 가슴이 뿌듯했다. 옷 수거하면서 서운한 마음과 분별심을 감당 못해 화났던 지난 몇 주간 일들이 녹아 내렸고 내참회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실리는 것 같았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파에 마음 태우는 몽골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길 두 손 모아 합장드립니다.



축/원/식/소/리/

변해 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한 선희 (40세, 직장인)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이 비단 예술 감상이나 역사 공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낍니다.

평소에 내 주변(직장, 가족, 친구 등)에서 일어나는 일 이외에는 별 관심 없이 지내온 습관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국제 기아니, 질병, 문명퇴치니 하는 큰 활동들은 비범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다른 세계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으나 하는 정도였고 인정머리 없음인지 어쭙찮은 인생관 탓인지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 모두 자기 복이 그 만큼 이라서 그렇겠지 하는 생각을 마음 바탕에 깔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론 나도 어렵고 힘든 중생중 한 명이라 생각하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언젠가는 남도 좀 도와 가면서 살아갈 날이 있겠지 가끔 생각으로만 지나치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JTS를 알게 되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고 JTS의 열정적이고 투명한 활동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인도나 북한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알게되니 아! 이젠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구나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고 사상이 필요하고 복타령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분들과 동참하여 같이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크지는 않지만 즉시 후원을 시작하는 것이 내 몫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 분들에게 한사람이라도 더 알려져 동참을 하면 현실적으로 좀더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니 의외로 후원에 뜻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시작 동기가 없었거나, 활동 단체를 잘 모르거나, 믿지 못해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선뜻 후원에 동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군요. 아직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조용히 이웃을 돕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어려운 이웃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서슴없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JTS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른 여러 홈페이지에 링크 하도록 소개도 하고 한 달에 한 명에게라도 이러한 뜻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수에 던진 돌이 파장이 되어 온 호수를 채우고, 하나의 달이 일천강에 비치듯 JTS의 좋은 뜻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반영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머지않아 정토가 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사르보다야 운동 견학

정정임, 마노즈, 스위티씨 3명이 8월 30일 사르보다야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인도 남동부 마두라스로 견학차 떠났습니다. 마두라스에 2개월간 상주하면서 마을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옵니다.

북한 지원사업

●함경북도 청진 밀가루 37.4톤 지원

지난 8월 11일 부산에서 함경북도 청진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37.4톤을 1차로 보냈습니다. 하반기 총 200여 톤의 밀가루를 지속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몽골에 의류지원

부산 정토회에서 지난 5월이후 수집한 의류 500박스 가운데 1콘테이너 분량인 235박스를 8월 13일 한국 제이티에스 몽골 구호물자로 보냈습니다. 몽골은 벌써 추위가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모아 주신 옷과 담요가 추운 날씨의 몽골인들에게 따뜻한 겨울맞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이티에스 몽골지사 설립

제이티에스 몽골지사가 8월 10일자로 설립이 완료되어 몽골에 대한 식량지원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정연씨가 실무자로 파견되어 활동 중입니다.

청소년 사업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이 8월 9일-12일 동안에 정토수련원에서 있었습니다. 24명의 청소년들과 이명륜 선생님 외 3명의 돕는이, 공양 돕는이들이 함께한 이번 수련에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련은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10월, 12월)실시될 계획입니다.



국제부

●이디오피아 구호활동

지난 5월 8일 이디오피아 구호와 조사활동을 위해 파견된 박선애, 노인자씨가 현재 동남부의 고데(Gode)지역에서 유니세프와 함께 활동중입니다. 박선애씨는 지역 책임자와 함께 총무역할을, 노인자씨는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식량 배급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교육사업

태국 국경지역의 미얀마 난민인 산(Shan)족을 위한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현지답사를 통해 현재 10,000명 정도 되는 산족 어린이들이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이화승 자원개발부 부장님 귀국

인도에서 제이티에스 법인 관련 업무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이화승 부장님이 실무자 연수차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9월 14일 다시 인도로 돌아가십니다.

●구미경씨 귀국

북한지원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구미경씨가 실무자 연수 관계로 잠시 귀국 하셨습니다. 9월 6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십니다.

<행자부 지원 프로젝트>

✧ 실업자 및 실직 노숙자 심성수련 프로그램 ✧

1. 실직 노숙자 집단상담 "나눔의장 수련"(4박 5일)
 - ① 일 정 : ● 9. 31(토)-10. 4(수) / ● 10. 4(수)-10. 8(일)
 - ② 대 상 : 노숙자 쉼터 거주자(60명, 선착순에 한함)
 2. "깨달음의 장 수련"(4박 5일)
 - ① 일 정 : ● 10. 4(수)-8(일) / ● 11. 8(수)-12(일)
 - ② 대 상 : 실직자, 실직 노숙자 5명(선착순에 한함)
 3. "나눔의장 수련"(4박 5일)
 - ① 일 정 : ● 10. 4(수)-8(일) / ● 11. 8(수)-12(일)
 - ② 대 상 : 실직자, 실직 노숙자 5명(선착순에 한함)
- 장 소 : 정토수련원 (경북 문경 소재)
 - 해 택 : 수련비 전액 지원 (20만원)
 - 문 의 : 한국JTS(Tel. 02-587-8995, Fax. 02-587-8998)

<http://www.jungto.org/jts> / E-mail: jts@jungto.org





깊은 마음 보내주시는 회원님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햇살이 눈부신 9월입니다. 새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려움 속에 언제나 따스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리라 생각합니다. 보내드리는 소식지 '아름다운 세상'은 잘 받아 보고 계신지요. 못 받으셨거나 더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그리고 소식지를 받아 보고 느끼신 소감이나 꼭 신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보내 주세요. 또 주소가 바뀌거나 후원금을 지로에서 은행 자동이체로 하실 경우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이체로 하시면 지로사용료 190원이 아껴진다는 군요.)

그동안 회원관리 업무를 하였던 한갑수 님이 사정상 잠시 쉬게 되어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세요. 항상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9월1일
회원관리부 최대원심 드림



후원회비는 은행으로 입금되는데 주소가 없어 소식지와 안내지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관리 최대원심 ☎ 587-8995)

- ♥ 국민결연 - 김지수, 우정숙, 이윤정, 최승엽, 이윤경, 유제상, 김상호, 김혜순, 김복남.
- ♥ 국민동포 - 유 선, 유경자, 강민호, 박혜경, 유재용, 백성현, 신명화, 엄효순
- ♥ 국민제이 - 함순복, 임영필, 조재형, 서성갑, 한청년, 박용순
- ♥ 조흥제이 - 최은주, 박숙희, 최규은 ♥ 하나제이 - 최인선, 최미전, 황현주
- ♥ 외환제이 - 손정남, 이연희, 이귀숙 ♥ 농협제이 - 한백교회, 조혜진
- ♥ 국민은행 - 이윤경, 유상열 ♥ 한빛제이 - 정태호
- ♥ 단위농협 - 이종구, 김동숙 ♥ 제일제이 - 임배아
- ♥ 주택제이 - 김진철, 유계조





신통금회원(개인, 단체) 명단

2000년 7월1일~8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어린이 결연

211-02074-11 노은정
211-02075-11 장민해
211-02076-11 신유호
211-02077-11 이명숙
211-02080-11 조미경
211-02081-11 함재혁
211-02082-11 김미란
211-02083-11 정보금
211-02084-11 김은숙
211-02085-11 이재복
211-02087-11 정규동
211-02088-11 일상스님
211-02089-11 김봉아
211-02090-11 유성천
211-02091-11 정영준
211-02092-11 김성자
211-02093-11 강희
211-02094-11 김정
211-02095-11 김성래
211-02096-11 김영신
211-02097-11 장한주
211-02098-11 양광혁
211-02099-11 김성희

단체결연

212-00173-11 박승태
212-00174-11 인헌중학교 통일무지개
212-00175-11 늘벗모임
212-00176-11 이준구
212-00176-21 차성순
212-00176-31 권한걸
212-00176-41 박춘서
212-00176-51 이화백
212-00176-61 임익상
212-00178-11 기림사(종강스님)
212-00179-11 지성한의원

특별후원금

비로자한의원	100,000원
선린미술학원	493,940원
신영자	10,000,000원
김학순	500,000원
만화행	200,000원
최경자 미국LA	1,300 \$
김은섭 미국LA	1,000 \$
무명	47 \$

인도결연

111-02440-14 손정토화
111-02441-14 김민정
111-02442-14 최귀옥
111-02443-14 김광웅
111-02444-14 최병연

※일본에 계시는 장옥희 님이 8월 5일 부터 7일까지 부락해방동맹 전국청년집회에 참가했습니다. 800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북한상황과 제이티에스 사업설명 모금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모금활동으로 약 29만엔 정도 모았습니다.



고사리 손에 고사리 저금통

선린학원. 면목동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웅변을 가르치는 평범한 동네 학원이다. 지난 3월 이 학원에서는 JTS에서 하고있는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알고 원생들에게 입학선물로 저금통을 나누어 주었다. 학기초면 늘 하는 입학선물인데 올해에는 뭔가 소비적이지 않고 의미있는 선물을 주기위해 고민하시던 원장선생님(송상영, 智海)이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학원생 또래의 아이들을 떠올리며 JTS의 '사랑의 저금통'을 나누어 주게된 것이다. 북한어린이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비디오 자료를 본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정성껏 참여해 주어 저금통 35개에 50만원 가까운 금액이 모였다. 원장선생님은 예상했던 것보다 호응이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입학선물로 사랑의 저금통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다. 한 학기동안 북한어린이를 돕기로 예쁜 마음을 낸 선린학원 어린이들과 도와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선린미술웅변학원 모금액》

김유진	5,760	송진호	10,080
금민수	13,600	이승수	31,550
김태원	7,040	이예린	29,110
이영지	15,760	임석봉	10,730
조은애	10,530	박현성	14,410
조성윤	3,950	강지현	27,840
나기혁	20,970	박재웅	55,230
손상영	36,260	강형구	23,080
황민아	9,500	황인정	16,590
이태규	10,460	이택진	16,260
김서경	9,340	김정현	21,220
석영준	2,140	김준호	8,720
김승주	18,290	강은옥	3,000
최승훈	6,500	손은정	9,770
심지은	4,660	허찬행	15,950
이진주	5,110	홍유진	12,630
김훈희	3,230	무명	2,390
석영민	2,280		

합계 493,940





라진 · 선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0. 8. 31 현재 (※ ☐ 미결연된 곳입니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8. 31 현재



※ 미국 뉴욕에 사시는 백영현님이 매달 200\$을 지원해 주셨는데 결연표에 빠져 있어서
〈청진수협탁아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바랍니다.





라진 · 선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0. 8. 31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8. 31 현재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시는 단체나 후원인께서는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북녘어린이를 살리는
결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금 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로번호 : 6921361
국민은행 086-01-0339-246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이티에스에 기부금을 납부하신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2조 1항 1호 타목, 시행규칙 17조 1항(종전 17조 50호), 부칙(1996.3.21) 7조에 의거, 개인의 경우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정기 거리모금 행사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품후원

지난해 연말경 몇군데의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의류, 의약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참에 주십시오!

